

운송 Analyst 오정하

02. 6454-4879

jungha.oh@meritz.co.kr

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 합병, 이르면 내달 초 EU 최종 승인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의 최종 승인이 이르면 11월초에 발표될 예정으로 보도됨. EC는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,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됨. (연합뉴스) (<https://buly.kr/5UGZSbH>)

Boeing Strike Continues as Workers Reject Contract Offer

보잉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. 보잉 조합원의 64%가 잠정 합의안 비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급됨. 지난 19일 임금 협상 합의안은 4년간 급여를 35% 인상하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짐. (Flight plan) (<https://buly.kr/3u1jXIW>)

국토부, 동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...236개 노선 주 4,897회 운항

국토부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'2024년 동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됨.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45개국, 236개 노선을 주 4,897회 운항한다고 언급됨. 이는 2023년 동기대비 주 597회(+14%) 증가한 규모로 언급됨.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주 260회(+7%) 늘어났다고 알려짐. (뉴시스) (<https://buly.kr/3j6zeUr>)

제주항공 "겨울 동남아·대양주 노선 예약률 70%"

제주항공이 2024년 겨울 동남아와 대양주 노선 예약률이 70%대를 기록했다고 보도됨. 12월과 2025년 1월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내용임. 이런 수요를 고려해 지난 16일 첫번째 인도네시아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고 언급됨. (뉴시스) (<https://buly.kr/1RD8tuX>)

한앤코, SK해운 통매각 타진...몸값 4조 기대

한앤컴퍼니가 SK해운 매각을 위해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추가 선임하고 HMM과 최근 수 차례 협상했다고 보도됨. 한앤코는 당초 탱커선 사업부만 분할 매각하는 방침에서 가스선과 벌크선 등 전체 매각 가능성을 열었다고 언급됨. HMM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자금이 6월말 기준 13.6조에 달한다고 언급됨. (서울경제) (<https://buly.kr/E77hWgf>)

Carriers plot rate hikes in anticipation of early Chinese New Year demand

선사들의 임시결항(blank sailing)과 11월 운임인상 발표(GRI)가 운임 상승을 야기했다고 보도됨. 주요 아시아-미주/구주 노선 운임이 3개월간의 하락세 이후 반등을 보였다고 알려짐. 후티반군의 공격이 지속되며 항로우회에 따라 성수기가 일찍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됨. (Tradewinds) (<https://buly.kr/6MqMVLn>)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